

뒤에

김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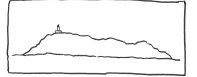
0

도시가 붕괴될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할까.

내가 떠나온 자연. 내가 떠나온 사람. 시간들. 장소들. 이층들. 문장들. 이야기들. 물음들. 웃음들. 나는 더듬거리며 밤 그리고 도시의 문장을 읽는다. 문장들이 이야기로 흡수된다. 문장들을 빨아들이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의 위장을 허물어뜨리는 문장도 있다.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나에게 대담을 원하지 않는다. 소가 여물을 먹듯 문장을 쓰고 있다. 문장 뒤에 오는 문장이 있다. 이층 뒤에 오는 이층이 있다. 목소리 뒤에 오는 목소리가 있다. 이야기 뒤에 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처음을 모방하면서 끝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끝을 향해 끝을 다다르지는 않는다. 이야기의 점진적 이동. 그것만이 이야기 뒤에 오는 이야기다. 나는 무를 씹고 있다. 무는 희고 둥글고 매끄럽다. 달고 맵다. 매일 밤 무를 먹는 게 일이 되었다. 집에 조그맣던 텃밭이 있다면 무를 키워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키우는 것에 재주가 없는 나는 무밭을 망칠 것이다. 때로는 홍수나 가뭄으로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무밭이 엉망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된 무밭을 보며 절망에 빠질 것이며 더 이상 무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자연에 저항하는 인간이 아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본질이다.

무를 잦아 뽑을 때 인간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가. 몇 방울의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갈 것이다. 이유 없이 화가나 무척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도 있을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무밭을 가꾸는, 무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농부를 고용할 것이다. 무밭을 가꾸는 농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어느 순간 무를 키우는 것이 아닌 무밭을 가꾸는 농부를 키우고 있다고 새삼 알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지겠지. 웃지 않을 수 없다. 웃음 뒤에 오는 것은. 그것이 또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 것이다. 자연이 떠돌이면 두려움에 가속이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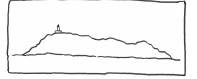
소가 여물을 먹듯 무를 씹고 있다. 무 같은 문장은 좋다. 무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좋다. 그러나 무 같은 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 어렵פות하게 유추할 수 있지않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 무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언어가 사물의 특성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이야기는 참 무해요. 이 문장은 어렵פות이 무어 닮았네요. 무 껌질처럼 언어의 껌데기가 벗겨지고 있어요. 이 글은 무 없는 무발이로군요. 이야기 없는 문장이 가능할까. 혹은 그 반대라도. 그뺄듯 수 있다면 그뺄뒤야 할까. 뺄은 너무나 길다. 달리 무를 씹고 씹을 수밖에.

무를 씹고 있다. 하룻뺄에 하나씩. 무 한 입에 문장 하나가 떨어지면 좋겠다. 신문지에 무 껌질이 가득하다. 무 껌질을 나눠 줄 뺄 없는 작은 집승이 있다면 좋겠다. 집승이 무무, 하고 울면 무 껌질을 던져 줄 것이다. 집승이 무 껌질을 무무, 하고 씹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끝내 나는 집승의 이흠을 붙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흠이 없으니 부를 일도 없을 것이다. 이흠이 없는 집승은 매일 뺄 스스로 자신의 이흠을 부르듯 무무, 하고 울어야 할 것이다. 무무, 소리에 잠을 설치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을 것이다. 바라는 것이 많아서 좋겠다.

찐 무를 먹고 이뺄이 빠진 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큰어머니가 내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고추를 뺄지면서 이야기를 했다. 터지고 갈라진 거친 손이 닿을 때마다 고훈이 오그라들었다. 큰어머니의 이야기에는 쓰라린 고훈이 있었다. 이뺄이 빠진 개는 이뺄이 빠져도 이뺄이 빠진지 모르고 아무거나 씹다가 턱이 빠져 죽었다지. 아따. 멀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야기는 갇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이 이야기의 주흠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도 사실이다. 큰어머니의 손에서 나의 고추는 주흠이 장했다. 더 이상 세계의 주흠을 장을 이야기가 없다. 어떤 이야기는 주흠이 접혔다 펴졌다 하다가 끊어지고 뺄다. 나의 이야기에 이뺄이 빠져 있다. 문제는 이뺄이 빠진지 모르고 아무 문장이나 씹으려 한다는 것이다. 언제 이야기의 턱이 빠질지 모른다. 이야기의 턱이 빠지면 좋겠다. 도시가 붕괴되기 전에. 기다린다. 그것만이 유일하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무를 먹고 집을 나섰다. 뺄공기가 매끄럽게 목덜미를 감싼다. 어떤 뺄들은 아무것도 노출시키지도 않고 은폐시키지도 않는다. 뺄은 걸어가는 자로 인해 농도가 달라질 뿐이다. 더 걸자. 뺄의 서늘함이 무릎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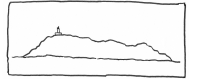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올라오면 잠시 걸음을 멈춰도 좋다.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이야기는 모든 것이 정지될 때 시작된다. 돌아보면 어떤 문장들이 그집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게 보인다. 문장의 급소에 침목을 박아 넣는 그집자도 보인다. 밤이 깨진다. 깨진 밤을 끌어모아 도시의 뒤편으로 달아나는 그집자도 있다. 이야기는 주로 밤에 사용된다. 밤에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면 밧 없는 집승으로 태어난다. 역시 큰어머니의 딸이다. 근거는 없지만 믿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밧 집승이 되어 도시를 거닐고 있다. 밤이 없다면 온몸으로 멀고 미끄러지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밧의 도시는 문장으로 덮어 두기 좋다. 문장 속에서 도시는 잘 굶삭을 것이다. 친숙한 목망과 어둠 속에 떠다니는 실패한 목망의 부유물들이 도시의 부패를 가속시킬 것이다. 잘 섞어 문드러지면 봉리 직전의 도시를 한 움큼 건져 맛을 볼 것이다.

조리흔가 없는 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누가 이런 이야기에 이층을 붙일 것인가. 손바닥을 뒤집어도 손바닥이 나오는 이야기의 맹점을 어떻게 찾겠는가. 찾을 생각도 없겠지. 찾을 생각도 하지마라. 우리의 혀는 자극적인 것에 단련되었다. 자극 뒤에 자극이 온다. 너무나 무뎌져서 이야기의 균열을 느끼지 못한다. 이야기의 허를 찌를 수 있는 혀가 필요하다. 진정하자.

어떤 이야기는 또 밤의 치마폭에서 시작된다. 물을 탄 간장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듯 이야기가 허벅지 사이에서 새어 나온다. 다리가 없는 거머타던가 입에서 털이 자라는 아이타던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다른 얼굴로 둔갑하는 유려타던가 인간의 언어를 거꾸로 따라하는 부엉이타던가 하는 이야기가 밧 속으로 기어 다니고 있다. 기어 다니는 것은 때론 너무나 비천해서 아릅답고 슬프다. 두려움을 감추고 있기에 더 그렇다. 자연을 위해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밧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인가. 밧, 도시, 그리고 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것들은 문장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문장을 봉리시키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나는 사랑한다. 이야기를 할 순 있어도 말을 할 수는 없다.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계속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봉리 직전의 도시의 밤에 머물러 있고, 무는 내 뱃속에 가라앉아 있다. 배를 두드리면 무무, 하고 울린다. 나는 밧이 없는



작은 집승을 잉태할 것이다. 유산할 것이다. 죽은 집승을 양육할 것이다. 이야기의 자궁벽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응고된 문장의 껍질이 떨어져 나간다.

여기 이층을 가진 자가 있다. 목소리가 있다. 밤에랄 뿐리는 이층이 있다. 밤에랄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나 뿐리는 이층이다. 이층을 부르는 목소리다. 나를 물려서게 하고 머물게 하는 목소리. 나를 떠나 나로 돌아오는 목소리. 목소리와 목소리가 충돌한다. 깨진다. 음악처럼 무너져 내린다. 목소리의 이중주. 어긋나는. 가능한. 유일한. 쓰라린. 결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떤 목소리는 선회하고 배회할 때만 빛을 낸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동안 장면 전환이 필요하다.

0

(손에 유리잔을 들고 있다면 일부러 떨어뜨릴 준비를 하며) 당신이 여기 무슨 일로.

(발을 어디로 감촉지 몰라 허둥대며) 발 없는 밤 집승이 되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잔을 바라보는 듯) 그런 거짓말이 통할 줄.

(오른쪽 발을 들려다 왼쪽 발을 들어 뽐리며)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들어 뽐려 가라는 시늉을 하며) 다시 뒤로 한 걸음 물려서기를.

(추락하는 자처럼 팔을 허우적대며) 한 걸음 뒤면 추락.

(추락한 자를 조롱하듯) 그 바닥이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

(비굴하게) 여기 머물 수 있게.

(당혹하게) 당신을 위한 이야기는 없어.

(비굴하게) 이 빈 자리는 누구를 위한.

(손가락을 들어 뽐리며) 당신 뒤에 있는 누구.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다가 돌아보며) 내 뒤에 있는 것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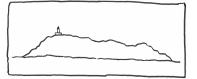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돌아보는 자를 비웃으며) 이제 당신 뒤에는 당신이 아닌 누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듯) 도대체 누구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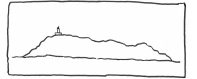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당혹하게) 당신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모르는 척하며) 그 누구나니.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듯)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누구.



(모르는 척도 못하며) 그 누가 내가 아니라면.
(당신이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듯) 당신이 아닌 수밖에.
(뒤늦게 후회하며) 내가 물려선 건 머뭇기 위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듯) 너무 멀리 물려났으니.
(여전히 모르는 척하며) 어제까지랄 해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며) 어제는 어제일 뿐.
(지금 말하고 있는 어제가 특정한 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듯) 어제의 같은 오늘이.
(내일이야말로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각오하듯) 그건 내일이 되어서야.
(내일이 과연 뭘까 의심하며) 내일이면 나를 위한 자리가.
(어제의 마찬가지로 내일은 오늘을 떠올려야지 결심하며) 내일도 오늘 같은 내일이라면.
(거울의 뒤편을 바라보듯) 왜 오늘은 오늘을 벗어날 수가.
(거울의 뒤편에도 거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에서야 그것을 알았다니.
(무지를 위장하기 위해 애쓰며) 무지의 뻘이 나를 인도 하나니.
(무지는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아니다 라고 뭔가 아는 것처럼) 무지의 말투를 쓰다니.
(성적 욕망을 빚대어) 조바심을 억누를 수 없어서.
(실패한 성적 욕망의 죄를 뭉으며) 설부른 충동이 모든 것을 그르치고.
(비굴하게 돌아눕듯이) 이렇게라도 머뭇 수 있게.
(이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정신을 녹여야 할 때임을 알리며) 물려서면 사라질 환영이니.
(어떤 태양도 나의 얼어붙은 정신을 녹일 수 없다는 듯) 환영이라도 좋으니.
(정신이고 내뱉이고 지긋지긋한 어제를 또다시 들먹이는 자신에게 한을 낼 수도 없어 땀냄을 느끼며) 그러나 어제의 환영과 다른 것을.
(상대방이 흥분한 탓에 기회를 잡았다는 듯 서둘러 말하며) 어제의 환영이 오늘의 악몽으로.



(악몽, 이라는 단어에 껌짝 눌러 들고 있는 유리잔을 떨어뜨리며) 그게 가능할 수는.

(마치 악몽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등떠서) 악몽 뒤에 오는 악몽에 대하여.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듯)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이제 악몽을 요요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듯) 악몽 뒤에 오는 악몽에 대하여.

(눈앞을 어지럽히는 요요를 집어치우라고 외치듯) 당신은 결코 말할 수 없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비굴하게) 말할 기회가 부족한.

(당혹하게) 이미 기회가 사라진.

(이제 비로소 악몽의 실체를 알았으니) 악몽의 연속이었다는.

(거짓말이 들키기를 바라며) 나의 악몽은 끝이 났다는.

(할 말이 없지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으니) 그런 다시 환영으로 출발.

(사전을 펼쳐 아무 단어나 소리 내 발음하듯) 나의 사전에서 이미 끝의 문장들은 사라지고.

(자신의 문장에 도취한 자가 그렇듯 이제 당신이 아닌 문장이 자신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든 문장이 허구인 것을.

(나는 좀처럼 도취될 수 없는 인간이기에) 나는 그 허구에 죽음을 걸었다는 것을.

(어떤 문장이 이야기를 뒤집을 것인가 떠올리며) 나를 위한 이야기는 정말.

(당혹하게 아니 맥없이) 당신을 위한 이야기는 없어.

(이 문장은 아니야) 나의 말도.

(좀처럼 끝이 나지 않을 것을 예감한 뒤 그러나 왜 미련을 두고 있는지 곰물하며)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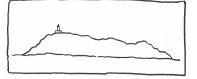
(이 문장도 아니야) 나의 울음도.

(지긋지긋해, 이 인간은 도대체, 왜, 여전히, 라고 생각하며 목소리 뒤에 오는 목소리란 사라지기를 결심하고) 없어.

(이 문장도) 나의 울음도.

(사라지며) 없어.

(이 문장도) 울음 뒤에도.



(사라진 뒤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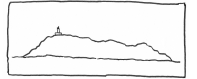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0

무한의 독백으로 건축된 도시 안에서 우리의 대화가 이야기의 봉리를 예고할 수 있을까. 읽기만 하면 사라지는 문장이 있다. 사라지면서 뒤에 오는 문장을 무너뜨리는 문장이 있다. 모든 문장이 이야기의 외곽으로 물러서고 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이야기는 끝내 문장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영원히 곁눈에 묶이고 막힌 것인가. 나는 대화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 감정을 숨기고 말하는 법을 모른다. 당신이 부재할 때만 당신은 문장이 되어 이야기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사라진 것을 불러내는 것이 이야기의 맹점이다.

당신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나의 자리라는 것을. 환영에서 악몽으로. 악몽에서 악몽으로 이어지는 꿈의 악순환 속에서 나의 목소리만이 잠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얼어붙은 우리의 이야기를 쫓겨 수 있다는 것을. 기억나는가. 기억하라. 기억해다오. 망각의 가시뿔뿔을 뚫고 기억의 저지대로 기어들어 가다오. 우리가 파도의 푸른 곡선을 바라보며 서로의 무릎을 비벼 대고 있을 때 세계와 우리 사이의 얇고 직진 막을 찢고 울려 퍼지던 목소리가 우리의 육체를 영혼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누군가 죽고 또 다른 누군가도 죽고. 도시의 내부에 굽이 갔다는 것을. 그 목소리는 지상의 언어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오로지 날려 보내야만 되돌아오는 목소리라는 것을. 밤의 페이지를 뚫고 날아다닌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늦었지만. 늦게라도 도착했으니. 말해야겠다. 말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다면 이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반복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의 턱이 빠져나 문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방법을 찾기까지 또한 얼마나 많은 문장 속을 배회하고 시간을 허비했음을 밝혀 둔다.

문장의 거미줄로 당신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이 밤의 나의 욕망이요 진실이다. 그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귀 기울여다오. 어떤 어조로 당신의 귀를 간직해야 할지 말해다오. 아니 말하지 마시오. 침묵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오. 내가 그날 당신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누운 것은 나의 악몽을 과장하기 위함이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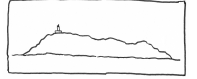


털어놓겠소. 창밖에서 양철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비유를 쓰느냐에 따라 빗소리의 색채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언어가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나의 뒤바뀌는 어조에 흔들리지 말기름. 오로지 당신은 침묵으로 나의 모든 언어를 흡수할 수 있기름. 모든 언어의 끝은 구부러지게 되어 있으니. 나의 목소리에 굽이 가더라도 언제까지 버텨 주기름. 당신의 환영이, 당신의 악몽이 나의 환영과 나의 악몽이 될 수 있기름. 무사히 잠의 사전을 덮을 수 있기름.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이 밤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남다는 것을 잊지 말기름. 욕망은 지연되고 진실은 진리에 가닿을 것이오.

나의 등 뒤에서 손가락을 세워 어깨를 두드리던 당신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 창밖의 빗소리만 함께 당신의 울음소리는 음악이 되지 못하는, 음악 이전과 음악 이후의, 경계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나의 악몽을 쪼개는 그 단조로운 반복의 중저음을. 도시가 천천히 붕괴되듯 음악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내가 여전히 돌아누운 채로 있었던 것은 필요한 이상의 감정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감정은 언어보다 앞서 나간다. 침묵 속에서 감정을 내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밤이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영원히 밤이 지속될 수 없듯이 당신의 울음도 그칠 것이라 믿었다. 울음에 대한 어떤 물음이 필요했었다고 당신은 생각하겠지. 울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에 대해서 필요한 이상으로 감정을 증폭시켰겠지. 애초에 울음의 원인은 사라지고 나른 인한 울음의 폭발이라고 생각했겠지.

밤이 물러나기 전 당신의 울음이 그쳤다. 그리고 당신 역시 나에게서 돌아눕는 뒤척임이 느껴졌다. 나는 왜 그때 몰랐는가. 당신의 울음이 결코 그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내부에서 더 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침묵에 굽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당신은 무릎을 구부릴 것이다. 당신의 내부는 울음으로 짝 차 더 이상 울릴 공명통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이층은 고통이 되었다.

뒤늦게 도착한 나의 언어들이 당신에게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꽂힌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독의 농도는 더 진해질 것이다. 문장으로 된 뒤떨인 밤의 이야기들이 독을 잉태하고 있다. 내 안에서 당신은 굽이 가고 당신은 무수히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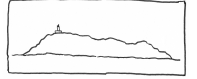


당신으로 쪼개진다. 그렇다면 내가 낯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도. 나의 독을 빨아들이는 칠품의 당신은 어디 머물면서 물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칠품은 왜 굽이 갈 뿐 쪼개지지 않는가. 나의 물음은 왜 이제야 당신의 물음에 가닿게 되어 있는가. 창밖의 빗소리가 들려온다고 멀게 낯드는 어떤 소리가 정신의 모서리를 갈아먹고 있다. 이 문장은 감정을 녹이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용서하기 바란다. 낯해다오. 나는 물러서고 있는가. 머물고 있는가. 칠품을 쪼개는 물음이 될 수 없는 물음은 과연 없는가. 나의 물음에는 왜 독이 묻어 있는가. 독은 왜 약이 되지 못하는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야기를 우회하고 선회하는 문장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둥근하살문장이라고 부르겠다. 결국 이렇게 나는 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더라도 돌아가게 되어 있다. 반복한다. 물러나는 것은 머물기 위함이다. 나의 사랑의 방식은 그러하다. 다른 건 모르겠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로 돌아가자. 둥근하살문장은 무의 이야기를 관통할 수 있을까. 무 속에서 밤 그리고 도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접히고 마는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다.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대도 머물러 있을까. 역시 나는 또 당신에게서 물러서고 있다. 머물기 위해 물러선다고 낯해도 멀지 않겠지. 멀지 않을 거야. 나의 둥근하살문장은 머물 수가 없으니. 뒤에 오는 것은 이야기의 끝없는 추락이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0

나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도 좋다. 고랭지농법 같은 이야기. 나는 무밭에서 태어났다. 우박이 떨어지는 밤 무밭에 숨어서 여자는 나를 낳았다. 도시 여자였다. 나의 물음소리는 우박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새벽에 큰어머니가 소피를 보러 나왔을 때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죽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여자의 가랑이 사이에 놓여 있는 나의 얼굴은 희고 둥글고 둥글어서 무 같았다. 팔다리도 짧았다. 큰어머니가 한 딸이다. 큰어머니가 무밭의 주인이었다. 마른 무청처럼 머리카락이 푸석거렸고 치아가 시커멓다. 전체적으로 무쪽같이 생긴 사냥이었다. 무밭 옆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도시 여자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여자의 시신을 마을에 넘기기 전 큰어머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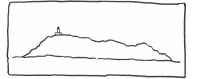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여자의 원피스를 벗겨 옷장에 숨겨 두었다. 내가 태어난 날이면 그 옷을 꺼내 꺼져 보곤 도호 감쳤다. 입고 싶었지만 옷이 찢어질까 두려웠다. 쫌처럼 뭉이 작아지지 않았다. 자신의 큰 뭉을 저주하듯 무를 뽑아 뒤호 던졌다. 오두막의 지붕이 매년마다 한 뼘씩 주저앉았다.

도시에서 길을 잃으면 간혹 무밭으로 흘러들어 오기도 하나보다. 무밭에서 무 넣았지. 큰어머니는 무를 꺾으며 말했다. 나를 무, 라고 불렀다. 겨울이면 오두막 가득 찼 무 냄새가 진동했다. 찼 무를 눈송이에 찍어 먹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도 찼 무를 던져 줄 개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바깥에 오두막이 흔들리는 밤이면 큰어머니가 바깥 든 무를 짚러 보듯 나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곤 했다. 밤에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면 밭 없는 집승으로 태어난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큰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고추 주름이 점점 퍼져 갔다. 어느 날 밤 무밭에 나가 달빛 아래서 수음을 할 때 큰어머니가 뒤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둘 다 얼어붙은 무처럼 가깝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큰어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이야기의 주름이 잦히다가 결국 쪼그라들었다. 다리가 없는 거미에게 다시 다리가 생겼고, 입에서 털이 자라는 아이의 입에서 털이 뽑혔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다른 얼굴로 둔갑하는 인리의 얼굴은 사라졌고, 인간의 언어를 거꾸로 따라하는 부엉이는 부엉부엉 하고 울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이야기 이전의 자연으로 돌아갔다.

큰어머니는 무를 뽑다 말고 벌렁 뒤호 누워 죽은 척하곤 했다. 큰어머니의 머리 위로 양떼구름이 지나갔다. 무무. 어떤 양은 그렇게 울었다. 겨울철에도 이가 시려 찼 무를 먹지 못했다. 무밭을 푹푹 끓인 뒤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려 천천히 마셨다. 간혹 무밭에 거꾸로 솟아 있는 무가 발견되곤 했다. 더 이상 큰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이야기를 막들어야만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다. 매번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오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거꾸로 시작되기도 했다. 엉부엉부.

내가 옷장에 숨겨진 원피스를 입고 잠이 든 것을 보자 큰어머니는 무로 나의 고추를 내려쳤다. 못써. 큰어머니의 마지막 딸이었다. 큰어머니는 작은어머니가 되었다. 폭풍이 부는 밤 작은어머니를 오두막에 가두었다. 문 앞에 걸어 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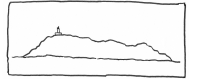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무침들이 바람에 바스러져 날리고 있었다. 원피스를 입은 채 나는 무발에 쪼그리고 앉아 가얏고 아래로 떨어지는 무릎 보았다. 둥글지도 희지도 않은 무였다. 그 무릎 안고 나는 무발을 떠났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사냥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웅었다. 씨뭇씨뭇.

무릎 낳은 여자가 도시에서 무발으로 숨어들었다. 나의 이야기는 무발에서 도시로 기어들어 가야 할 한다. 이야기의 무발에서 내가 뽑아낸 것은 어떤 문장일까. 어떤 문장들은 거꾸로 뒤집히곤 한다. 소가 여물을 먹듯 이야기의 껍질을 꺾어 먹고 있다. 무발을 뒤흔드는 바람이 불어온다. 이야기의 귀를 간질인다. 도시는 붕괴 직전이다. 큰어머니가 이야기의 속살을 찢고 나쁜 나를 부른다. 무야. 딸한다. 나의 목소리를 통해 딸한다. 목소리 전환. 목소리의 점진적 변화. 어떤 목소리는 이야기를 뭉툰하게 둔갑시킨다.

0

무야. 이제야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솔직해질 수 있다면 소용없어도 상관없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 번도 솔직히 말한 적이 없구나. 솔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사냥이 솔직한 게 무슨 소용이겠니. 너는 꼭 나를 이렇게 등장시켜야 했니. 할 수 없지. 나의 딸은 너의 이야기 속에서만 빛을 낼 수 있으니. 할 수만 있다면 너의 이야기를 앞선 속에 가두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무야. 나는 나의 딸이 소용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딸하겠다. 나는 너의 큰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너의 작은어머니가 아니다. 무야.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의 어머니가 될 바에는 부엉이가 되어 주겠다. 이제 나는 모든 딸을 거꾸로 할 참이다. 어영부영. 잘 들어라. 거짓말이다. 거꾸로 말해도 너는 쉽게 알아들을 테니 거꾸로 말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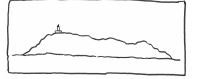
나의 인생은 너로 인해 뒤집혔다. 무발을 가꾸는 나의 평온한 삶이 너로 인해 한순간 끊어졌다. 너의 울음소리가 나의 삶에 물음을 던져 주었다.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나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이야기를 할수록 이야기가 달라졌다. 애초에 이야기보따리 따위는 없었다. 보따리를 풀면 보따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는 세상을 주름잡는 딸한 이야기였다. 나의 이야기 속에서 너는 자라났다. 너의 고추의 주름이 그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냐. 알고 있다. 무야. 이제 네가 주눅 짱을 세상이 없다는 것을. 무발을 버리고 도시 한 칸 너에게 이야기는 무용하다는 것을. 도시는 이야기를 희박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도시를 봉리시킬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너는 너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너는 오로지 무발의 이야기를 맵들며 문장을 가공시킬 뿐이다. 자연은 스스로 변형될 뿐 이야기로 달라지지 않는다.

밖 그리고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내 뺨에 끼어들지 마라. 이미 끼어들었어도 잠자코 있어라. 이야기의 주눅을 짱아당기지 마라. 네가 기억하는 모든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다. 잊을 수 있다면 잊어라. 그리고 너의 이야기의 구멍을 뚫고 기어들어 가거라. 자세를 쭉 더 낮춰라. 잊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이야기 뒤에 나의 이야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이것이 너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저주다.

나의 무발에 버려진 저주 덩어리. 무야. 너는 그건 짐승이었다. 너는 영원히 성장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야기의 독을 빨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네가 나의 무발에 흠뻑인 희열건 국뭍에 무들이 퍼져 날뛰고 깔았다. 네가 나를 오두막에 가두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다시 옷장에 가두었다. 원피스가 걸쳐 있던 자리에 나를 걸어 놓았다. 바람 든 무처갓 속이 비워지고 있었다. 얇은 바람에도 내부가 떨리는 거대한 울집통이 되었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이야기는 누군가가 떠나고 난 뒤에 시작되나 보다. 무를 십지도 않은 자리에 무가 자란 이야기에 나는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으로만 둔갑할 뿐이었다. 너의 언어를 빚어 말하면 고통이 이야기의 본질이다. 어렵다. 어지럽다. 거짓말하지 마라. 고통은 사건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너는 고통을 모른다. 고통에 본질 따위는 없다. 고통은 오로지 고통으로서만 말해질 뿐이다. 너의 언어는 허약한 감정의 뿌리에 흔들리고 있다. 얼마 후 나의 무발은 폐허가 되었고 오두막은 붕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다. 네가 이야기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무야. 뺨이 없는 뺨 짐승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집어삼킨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렇다고 나의 무발을 도시 이야기로 더럽히지는 마라. 네가 입고 도망간 원피스는 나의 옷장에 다시 갖다 두어라. 무야. 너는 도시에서 원피스가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 원피스. 한 조각.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 중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원피스. 이걸 뭘을 왜 하고 있는지 묻지 마라. 나도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은 무척뿐만이 아니다. 아무 여자에게나 무릎 주지 마라. 어떤 여자들은 무릎에 쥐도 새도 모르게 무릎 놓고 든다. 너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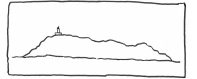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무야. 나의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너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너를 원망할 수 없다. 나의 이야기는 너의 목소리를 관통할 수 없다. 흡입 정도는 낼 수 있겠지. 너도 할 수만 있다면 목소리를 바꾸고 싶겠지.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는단다. 무야. 무릎 뽐을 땀 다음에 뽐을 무릎 생각하고 뽐아라. 무릎에 있는 게 다 무라고 뽐으면 안 된다. 이야기에서 쓰러진 교훈을 찾으려 들지 마라. 무야. 한 시절 우리의 이야기는 유아무야한 이야기에 불과했다. 불과하더라도. 나의 저주가 너의 이야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균열이 일어나기를. 소용없지만. 늦었지만.

도시가 붕괴될 때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다. 거짓말이다. 사실 궁금하지 않다. 다만 이렇다. 무야. 이제 이야기가 붕괴되고 있어도 다시 시작해라. 네가 나를 부른 것에 대한 보답은 없다. 이렇하면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뿐이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싶구나. 빠져나갈 수 있다면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나를 큰어머니로 부르건 말건 솔직히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0

이게 정말 나의 이야기일까. 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바닥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추락과 동시에 바닥인 이야기. 바닥에 닿기 전 추락의 쾌감도 없었다. 땀을 허우적대지도 못했다.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문장이 나를 지상의 밤으로 데려갈 것인가.

나는 도시의 밤을 걷고 있었다. 건다가 멈췄다. 그렇게 기억한다. 일단 멈춤. 잠시 멈춤. 다시 멈춤. 영원히 멈춤. 멈춤의 전환. 멈춤의 점진적 이동. 모든 행동 뒤에는 정신을 녹일 필요가 있다. 분석과 정의. 그건 날뜰들이 나의 문장들을 붕괴시키기 전 바닥에 냅작 엮드려야 하리라. 내가 곧 이야기의 바닥이 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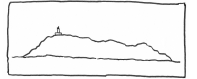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등근하살문장이 이야기 이전과 이야기 이후의 경계 이야기를 아슬아슬하게 빗겨 나가도록. 바닥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의 바닥에도 도시의 밤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거꾸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거꾸로 솟을 필요는 있다. 바닥 아래를 파고드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야기의 틈을 뚫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리라. 달을 때까지. 달지 못하더라도. 발음할 수 없는 언어의 오물을 온몸에 덕지덕지 묻혀 가며.

내가 볼것던 이늬들. 내가 잘못 볼것던 이늬들. 당신이라는 이늬의 목소리호. 이야기를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던가. 모르겠다. 지금처럼 내가 밤의 도시에 편취 서 있을 거라고 당신은 예상했는지 모른다. 당신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이야기의 종말을 예고할 것이다. 편취 서 있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내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미 나를 지나쳐 갔거나 아직 내 뒤에 머물러 있다. 밤 그리고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 무 이야기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폐허의 무발처럼 문장들이 쪽나고 있다. 이야기 속의 저주가 이야기 밖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의 이야기는 이야기라는 낱말의 벽돌 쌓기에 불과한지 모르겠다.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한 이야기인가. 말는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리다. 벽돌도 쌓다 보면 건축이 된다. 허물어지는 것도 건축이다. 어떻게 허물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이야기의 건축. 바닥 아래로 무한히 뻗어 나가는 건축. 무발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른다. 모두들 이야기와 한해하라고 나를 부추긴다. 나는 이야기와 한해하고 싶지 않다. 언제 싸웠는지도 모르겠다. 싸움이 가능하기나 할까. 이야기는 무형의 건축이다. 밤만 되면 여기저기로 자리를 옮겨 다닌다. 허접의 문장이라 노리면 이미 허접은 다른 문장에 가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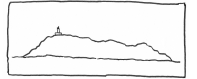
전진적으로 한해시키고 싶다. 한해되어도 이야기는 이야기로 남는다. 우리가 도시를 거닐고 있을 때 도시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도시가 붕괴될 때 우리의 정신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 도시는 붕괴를 위해 설계되었다. 도시는 거대한 폭약이다. 폭약의 도한선에 불을 붙일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모든 도시의 건축을 불신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 솔직해져야 할까. 누구를 위해.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폭약보다 더 잔혹한



폭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장들은 불빛의 연속이고 그것이 곧 이야기가 된다. 도시가 붕괴될 때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야기의 연막탄을 터뜨리고 공포탄을 쏘아 쫓고 싶었다. 바라는 것이 많아서 좋을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 도시가 붕괴되는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다니.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가 붕괴되기 전 우리는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 거짓말이다. 길을 잃었다 착각하게 만들었다. 당신을 녹여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은 말한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나는 말한다. 우리는 길을 잃어야 했다고. 어떤 이야기는 도시에서 길을 잃으면 무발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어 있다.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큰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의 주춧돌.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의 주춧돌 이야기. 당신은 물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멀고 있었다. 엉부엉부. 우리는 무타 무 사이의 좁은 이랑에 누워 텅국었다. 무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밖에 차이는 것이 전부 무는 아니었다. 마른 무침 같은 당신의 웃모가 나의 입에서 자라났다. 좀 더 가 볼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극 뒤에 오는 자극 앞에서 우리는 무장해제된다. 당신의 원피스가 찢어졌다. 허벅지가 벗어졌다.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건축했다. 한 조각도 못 되는 이야기를. 어영부영. 나의 이야기는 찢어지고 당신은 우연히 찢어지지 않는 문 개입지도 모른다. 나에게도 이야기의 땀병지가 있다면 당신과 함께 텅국던 무발이오. (뒤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말한다. (뒤돌아 선채) 그러면 당신은 말한다. 나에게 무발은 유형지에 불과했어. 오로지 당신을 위한 무발이지 나를 위한 무발은 될 수 없어.

엷춰도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다. 끌려가다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는 이야기도 있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도시가 붕괴되었고 당신도 붕괴되었다. 붕괴 뒤에 붕괴가 있었다. 나 역시 도시와 함께 붕괴되었다. 붕괴 이후 나는 폐허의 목소리로 낚아 이야기 뒤에 이야기를 부르고 있다. 붕괴도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어떤 이야기는 붕괴 이후에 시작되기도 하나보다.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시 시작하고 있다. 도시 뒤에 도시가 있다. 도시라고 있다. 그것이 내가 이야기를 이어 가는 이유다. 거꾸로 말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해도 이야기를 되돌릴 수 없다. 다시 시작해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 가능하다. 유일하다. 쓰라리다. 이것이 이야기의 고통과
사랑 뒤에 오는 것이다. 라고 나는 알게 되었다.